

해남군 양파 종자 생산량 전국 1위 달성

연간 11t, 국내 채종량 70%... 토마토 등 채종사업도 추진



해남군이 온화한 기후와 숙련된 농가들의 재배기술로 전국적인 양파채종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가림하우스에서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모습. (해남군 제공)

양파종자의 수입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전국 최대 양파 종자 생산 지역으로 부상하는 등 채종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 내 45농가가 18.5ha에서 연간 11t 가량의 양파 종자를 채종하면서 생산량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양파 종자 소요량의 15% 가량으로 국내 생산량의 70%가 넘는 규모이다. 200억원 규모의 국내 양파종자 시장은 80%를 일본 등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6월 말부터 채종하는 양파는 전량 종묘회사를 통해 출하되며 0.1ha(300평)당 600만~800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07년부터 농가 소득사업으로 양파 채종사업을 적극 육성, 수분매개충인 연두금파리를 이용한 양파채종

기술을 보급해 오고 있다.

지난해 수분 매개충 사육시설 10개소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도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냄새 제거를 위한 미생물 분해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번식과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해남은 연평균 기온이 13도의 따뜻한 날씨로 채종의 적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른 지역 보다 양파채종 경력이 많고 높은 재배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파채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양파 채종 외에도 고추 우량종자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토마토와 박과류 등 채종사업을 적극 추진해 농가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의회의장 김상헌·부의장 장영우 의원

진도군의회의는 최근 제242회 임시회를 열어 제8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헌(58·재선) 의원을, 부의장에 민주평화당 장영우(59·초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진도군의회의는 전체 의원 7명으로 소규모인 탓에 상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전체 의원이 모든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상헌 의장은 "군민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동료의원들과



김상헌 의장 장영우 부의장

함께 군민의 대변자로 바로 서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진도군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25일까지... 진도경찰과 합동

진도군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종 건설 공사의 증가로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아지고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 피해를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반은 2개 반 5명으로 운영되며 진도경찰서와 합동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변경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비산먼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군은 위반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과 행정 처분을 하고 위반사항은 시정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자체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감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진도군 발주사업 계약 심사 12억원 절감

진도군은 올해 상반기 발주 사업 계약 심사로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1억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대해 발주 전 원가산정과 품질확보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군은 예산 낭비 사전 방지와 예산집행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계약심사를 시행해 2017년까지 7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75건 186억원의 계약심사를 해 공사 10억원, 용역 1억원, 물품 구매·제조 1억원 등 총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군은 절감한 예산을 군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 품질향상과 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해남 40농가 300여t 생산

시설무화과와 소득작물 각광



해남군 특화작목인 시설무화과가 소득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땅끝에 있는 송지면과 북평·북일면을 중심으로 40여농가 17ha 면적에서 재배되는 시설 하우스 무화과는 올해 300여t(15억원)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 시설무화과는 노지재배보다 1개월 이상 일찍 시장에 나오고 자연재해 영향 없는 최신 하우스 시설에 상자를 이용한 수경 재배로 당도가 높고 조식이 치밀해 최고급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생산된 무화과는 재배농가 출자로 설립된 땅끝농산물(주)을 통해 공동 선별 및 출하돼 전남농협지역본부와 연계한 과일 공동브랜드인 '상류'로 소비자와 만난다.

땅끝해남 시설무화과는 7월 중순부터 출하를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생산된다.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어 '여왕의 과일'로 불리는 무화과는 단백질 분해효소인 피신과 각종 탄수화물,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소화불량과 피부 미용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 해양치유·해양관광 기후변화 적극 대응

광주지방기상청과 업무 협약

완도군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광주지방기상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완도군과 광주기상청은 지난 2015년 7월 한차례 업무협약을 맺고 완도 전복 해양 융합 기상서비스 개발, 기상기후자료 공유, 각종 워크숍 및 포럼 개최 등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과 완도군의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의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해양치유 및 해양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서비스 협력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관련 자료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연구, 세미나, 포럼, 교육지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등 4개 협력분야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기상정보 활용서비스 협력분야는 완도



완도군은 지난 16일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광주지방기상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 제공)

의 정정 해양기후를 활용한 해양 융합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학화된 해양치유산업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양 기관이 이번 협약

을 통해 기상·기후 과학 정보와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해 기후 변화 대응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완도 신지도 철갑다시마 막바지 수확 한창 올 600여t 생산 51억 소득 예상

태풍이 몰라나고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완도 신지도 어민들이 특산물인 철갑다시마 막바지 수확을 서두르고 있다.

17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지도는 다시마와 톳, 광어, 전복 등 해조류와 어패류 양식이 본격적으로 이 곳에서 생산되는 다시마는 업체의 무게가 두껍고 오래 두어도 쉽게 맛이 변하지 않아 철갑다시마로 부른다.

신지도는 150여 어가가 167ha의 양식

장에서 매년 철갑다시마 600여t 가량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0억원 상당의 소득을 올렸다.

신지도 철갑다시마가 상품성이 뛰어난 것은 조류 소독 등 해조류 생육 여건이 적합하고 어민들이 제때에 수확 작업과 광장이 모자란 퇴치 작업을 실시, 좋은 양식장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이다.

정정바다에서 어민들이 키운 다시마는 짧게는 3m에

서 길게는 5m까지 자란다.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수확하는 다시마는 산소 음이온을 머금은 해풍이 불어오는 양지바른 육지 건조장에서 위생적으로 건조, 출하하기 때문에 최고의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수확 위판장에서 kg당 평균 9000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600여t을 생산해 51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